

# 포스코, 브라질 희토류 개발 투자

## 일본과 컨소시엄 구성 2조원 투입 ... 니오븀 광산 지분 15% 확보

포스코가 일본기업과 합작으로 브라질의 희토류 개발 투자에 나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과 일본기업이 브라질에서 희토류인 니오븀 광산의 지분 매입에 2조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이다.

포스코와 신일본제철 등 한국과 일본기업의 컨소시엄은 생산단계에 있는 브라질 희토류 광산에 1500억엔(약 2조원)을 투입해 지분 15%를 확보하기로 했다.

Nippon Steel과 JFE Steel 등 일본기업이 1000억엔, 포스코와 국민연금 등 한국계가 500억엔을 각각 투입해 브라질의 CMBB로부터 자동차의 강판으로 쓰이는 강재의 강도와 내열성을 높이는 첨가제의 원료인 니오븀을 사들일 예정이다.

브라질과 캐나다에 집중 매장된 니오븀은 고강도저합금강, 내열강, 탄소강의 첨가물로 초경량 신소재와 정보기술(IT) 융합제품에 사용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한국기업이 브라질 희토류 광산의 권익을 확보한 것은 해외 희토류 확보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 선수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03>